

경북도, 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안전재난예방추진단’ 구성
현장 밀착형 예방활동 추진
“도민 안전확보 모든역량 집중”

경북도는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재난예방추진단’을 구성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른 해빙기 사고 위험 증가와 재난·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 1주기를 맞아 유사 사고를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도는 안전행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재난 예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단은 부서 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안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며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특히 급경사지와 하천, 노후 저수지, 주요 기반시설 등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결과를 공유해 도 전체 안



경북도청 전경.

전점검 현황을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도민 생명 보호 ▲시설물 점검 ▲하계 재난사고 대비 등 3대 분야 20개 업무를 선정해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도민 생명 보호 분야에서는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개선해 스마트 알림, AI 자동전화, 주민 안심콜, 순찰 앱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시군당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감찰과 안전보건지킴이 사업도 실시한다. 또 국비 14

억원을 투입해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추진하며 잠재 위험요인 발굴과 제거에 나선다.

시설물 점검 분야에서는 봄철 지역 축제장과 다중이용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주거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하천과 노후 저수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어갈 예정이다.

하게 재난사고 대비 분야에서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한 인프라 점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오작동 방지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하천 범람 우려 구간,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점검해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특히 산발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권 피해 우려지역 64개소에 대한 긴급조치를 완료했으며, 토사유출 우려지 238개소에는 81억원을 투입해 응급 복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총 500억원 규모의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해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안전은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에서 완성된다”며 “선거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부산형 통합돌봄’ 고도화

부산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형 통합돌봄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13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외에도 병원안심동행, 가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8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해 더 촘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산만의 특화 서비스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사업 총괄기획을, 부산자활센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맡게 된다. 더불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및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울산경남회는 방문운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사천시

경상대 사천캠퍼스 설립 승인

경남 사천시는 경상국립대학교 사천캠퍼스 설립이 교육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대는 용현면 통양리 소재 사천GN U사이언스파크 일원에 사천캠퍼스를 조성하고, 2026학년도부터 우주항공 분야 대학원 학과를 이전·운영할 계획이다.

사천캠퍼스에는 글로벌대학사업을 통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일반대학원 우주항공 기술경영학과(계약학과)를 비롯해 항공우주 특성화대학원 2개 학과(항공우주공학과, 우주항공정책학과)가 이전한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진주시

승산마을 ‘세계 관광마을’ 후보

LG·GS·삼성·효성 등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을 배출해 부자마을로 알려진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이 유엔관광청이 주관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지에 올랐다.

진주시는 지수면 승산마을이 유엔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하는 ‘제6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 공모에서 대한민국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6개 마을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승산마을이 포함됐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공모

포항시는 기부자의 뜻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6년 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기부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원 등 관련 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전반이다.

/포항=김진곤 기자

경남도, 제조AI 대전환 육성방안 추진

5대 하드웨어·4대 제조서비스 기반
20개 사업 우선 발굴... 8141억 투입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사진)가 경남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조선·미래차·우주항공·방산 등 주력 산업의 비약적 도약을 위한 제조AI 대전환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5대 핵심 하드웨어와 4대 제조서비스를 두 축으로 삼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5대 핵심 하드웨어는 휴머노이드 로봇, 고성능 센서, 극한 환경용 소재, 냉각 공조 시스템, 초정밀 반도체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제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액추에이터·감속기 등 국산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고성능 센서와 극한 환경용 소재 분야에서는 450억원 규모의 극한 환경 피지컬 AI용 반도체 센서 IC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을 벌인다. 초정밀 반도체는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항공우주·방산·정밀기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연계를 꾀한다.

4대 제조 서비스는 에너지·통신, MRO, 데이터, 인력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SMR 혁신 제조 국산화 기술 개발에 2695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인력 양성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AI 융합·고급인재 6000명을 키워 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개 사업을 우선 발굴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8141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방-후방-연관(MRO) 산업이 상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하고, AI 스타트업과 반도체·소부장 기업 유치를 확대해 첨단 산업 투자 허브로의 도약도 노린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전남도, 민생안정 사업비 2856억 확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 등 집행

전남도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유가 대응 등 민생안정 사업비 285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원을 비롯해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53억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67억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35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억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9억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79억원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시설농가 유류비 지원 등 546억원만 반영됐지만 전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경운기 등 농기계까지 유류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

극 설명하여, 농기계 유류비 지원 확대와 농어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2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다만 전남 광주 행정통합 준비 비용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지속 건의했지만 이번 추경은 중동 전장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지원에 한정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사업은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협력,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부족분은 예비비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지역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남=양수병 기자 ysn6313@

부산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2조 투입

올해 20만8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부산시가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20만개 창출에 나서며 고용률 1위 도시 도약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구인·구직 간 불균형(미스매치)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올해 총 2조1187억원을 투입해 20만8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고용 지표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순항

경주시는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확충과 수질 개선을 위해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현곡면 8개 리를 대상으로 생활하수 처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85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52km 정비와 중계펌프장 22개소 설치, 배수설비 1293가구 개선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농촌지역 하수 처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주시는 2023년 총괄공사를 발주해 1차분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2차분 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병행 추진했다. 이후 3차분 공사에 착수해 현재 공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4차분 공사에 돌입해 단계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하수의 체계적 처리를 통해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과 위생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